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3호](2013.11)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부산포교소, 오픈하우스.....체계적 전시로 반응 뜨거워

부산포교소는 지난 10월 4일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체계적 사진전시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교소 법당에서 개최된 오픈하우스는 사진전시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당일 제등호마법요에 참석한 120여명의 신도들 대부분이 사진을 감상하였다. 사진전시에는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았다.



전시된 사진은 진지한 기획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선정되었다. 사진전시는 보전 좌우의 복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오른쪽 복도에 마련된 '해외법요와 \

서울, 2차 오픈하우스 준비단, 부산한 움직임

11월 10일 제2차 오픈하우스 행사를 앞두고 행사준비단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묘수의 아이디어 창출에 들어갔다. 부산 오픈하우스가 교도들에게 어필되자 이에 자극받은 서울은 처음 스타트한 자긍심을 살려 보다 더 지혜를 발휘, 교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행사로 승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제2차 오픈하우스 행사는, 외부인들도 참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홍보 등에도 크게 신경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 행사' 코너에서는, 각국 정사가 세계지도에 표시되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여원의 발전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복도 안쪽에는 진여원의 본존불인 '구원상주석가모니여래', '11면관세음보살', '부동명왕' 사진이 전시되었다.



전시는 보전안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신초지시대, 점심도량시대, 발상정사시대, 유음정사, 응현원, 우심원 등으로 발전해 온 변천과정이 전시되어 개조·영조께서 쏟아주신 구제의 영선이 크게 확대해 온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왼쪽 복도에는 총본부의 영묘와, 현재 공사중인 부산정사가 전시되었다. 특히 부산포교와 관련해서 80년대 가정집회부터 현재의 정사 건립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진여원 부산'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부산 사무국,
글 kht707@hanmail.net>

[인터뷰] 부산 오픈하우스, 기획주도한...차유미 사무국원

☎ 많은 준비를 한 것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수고 많으셨네요?

☞ 사진 선별은 사무국에서 했고, 전시는 청년회에서 봉사해 주셨는데, 부산은 청년분들이 서울보다 적어 크게 수고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서울포교소 행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 서울부회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봉사 협조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부산에서는 많은 사진을 보고 함께 깊이 기도하여 자신감을 갖고 가르침을 전해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부산에만 게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진여원이 세계적 가르침이라는 점, 본존불도 과위가 다르며, 개조·영조님의 마음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 보전안에도 사진전시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어, 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었어요. 그 점이 항상 안타까워, 이번에는 보전내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하여 보전안에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 보전 입구에 대형 하트모양의 교도들 사진이 전시되었는데, 모두들 인증샷을 찍기도 하더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 대만에 갔을 때 느낀 바를 활용한 것입니다. '내 얼굴사진이 보전에 전시되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기회이지 않을까요.

☎ 부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 한번의 관람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료를 통해 발굴하였고, 또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체험담] 큰 사고에도 무사...받고 대수를 몸소 체험하고...새롭게 정진을 각오하고 있는 오주열 교도

2004년 7월 집사람의 가족입신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노엔에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이름을 목사님께서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사찰건축을 많이 하여 많은 스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불교에 귀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일본 절에 나간다는 겁니다. 같이 나가자는 말을 들었으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노엔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2007년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2007년 가을 야마나시 제등호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마의 장엄함 때문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조금씩 점심수행, 예자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디스크 때문에 왼쪽손이 저려서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좋아지지 않았는데, 점심에서 ‘팔이 아프지만 몸을 소중히 하여 앞으로 신노엔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저의 몸을 신노엔계에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영언에 정말 놀랐습니다.

2010년 5월 대승을 상승받았으나, 남들이 겪는 ‘경험’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을까를 생각하자 열심히 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2012년 한수행 입원을 “나를 바꾸자”로 세웠습니다. 중원 5일째 공사현장 점검중 약 2층 높이의 틈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약간 굵히기만 하고 무사하였습니다. 어딘가 부러졌을 상황이었으나 무사했으니 저도, 주위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연말 교통사고에서도 저는 전혀 다치지 않은 것이 기억났습니다. 받고대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큰 힘을 제 자신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수행이 끝나고 본에자 참좌를 위해 응현원에 갔었는데 수천명의 교도가 일본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예자가 시작되고 기도를 하였으나 웬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언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시간이 길어 차라리 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모든 게 귀찮아져 양반 다리로 고쳐 앉아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본에자인데 전혀 기도가 안된 자신에게 화가났고 너무나 허무하였습니다. 예자 후 상구보리를 하였는데, ‘기도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정화를 해야 하니 기도가 안되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과 집식구들에게 감사하라’,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튿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기도를 깊이하는데 왼쪽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러왔고, 법계의 정인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손가락이 아파 부러질지라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호법선신님께 기도드렸더니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벽차오르는 느낌에 자꾸 눈물이 흘렀으나, 왼손과 오른손 합장이 안된다고 말씀하시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대답하면서 조상님들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제 합장이 되었습니다’ 며 고레이주를 올려주시는데 감사함과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천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환희는 더욱 정진하라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보사를 위해 대환희, 영능자를 목표로, 그리고 가르침을 넓히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파동 칼럼> 태산(泰山)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

서울과 부산에서 20명이 영위향상의 기쁨을

“태산(泰山)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뒤흔(산)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흔(산)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명종 때 문신인 양사언의 시조로 최소한 초당 시절부터 한번 정도는 들어 봄직한 “실천을 강조”하는 시조이다. 태산은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5대 명산 중의 하나로 중국인들에게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산이다. 높이는 해발 1,545 미터에 불과하지만 산허리가 길어 정상에 도달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이다. 요즘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양사언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조는 산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소문만 듣고 직접 올라 가 보는 체험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시조만큼은 우리 신묘엔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심수행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언과 같은 시조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떻게 하면 상승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지만, 항상 대답은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깨달게 되는 ‘체해(실천)’를 강조하게 된다.

사실 우리들 각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방식(행동, 말, 생각)대로 살아 온 삶 즉, 세간 법대로 살아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

상참배를 앞두고 신도들의 신심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 10월 26일과 27일, 본예자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었는데, 환희 8명, 대승 12명이 큰 기쁨을 받았다. 환희상승자는 김운숙·박경희·전부자·정광남·한대회(이상 서울), 김길자·이도근·이정구(이상 부산), 대승상승자는 김명임·김태은·조영애(이상 서울), 김혜정·노말자·오준호·이성남·이재열·정남수·하맹재·한상련·한명숙(이상 부산) 등이다.

↘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여래 법)이다. 즉, 부처님의 말씀대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절간에서 하는 행동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 같은데, 절간문을 나서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변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자신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심수행에서 얻은 영언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상점심으로 살려가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절간에서 하던 자비로운 모습,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한결같이 행하여, 누구나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자신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여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상승해 가는 지름길인 동시에, 신묘엔 사람들의 덕목이 아닐까한다 (김창근).

<칼럼은 진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